

## 설비건설업계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등대 될 터



박 종 학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월간 「설비건설」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 1989년 11월 25일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창립된 후 1990년 5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지령 2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월간 「설비건설」이 200호를 맞이까지 성원하여 주신 전국의 회원사 여러분과 관공서 및 발주관서, 종합건설사에 종사하시는 설비기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그동안 설비건설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과 국내 및 해외의 신기술·신공법을 비롯하여 하자사례 등 기술정보 보급에 힘써왔으며, 업계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설비건설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월간 「설비건설」이 발간된 지난 17년 동안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200만호 주택건설과 IMF 등 건설경기의 호황과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서 영욕의 세월이 점철되었습니다.

국내 건설산업이 태동되었던 50년대만 하더라도 '설비'란 용어는 없었고 급·배수설비가 전부였던 시대에서, 지금은 인텔리전트빌딩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린룸은 전체 공사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아주 핵심적인 분야로 성장하였습니다.

작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165억불 중 70%를 기계설비분야에서 달성한 것과 같이 기계설비는 건설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변혁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금의 원·하도급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겸업제한만 폐지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우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설비건설업계는 이밖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는 관련법의 지원을 받아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일관성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 기계설비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의 각종 기술기준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분야 타법에 분산되어 있어 기계설비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관련법 제정을 위해 기계설비분야의 업계, 학계, 관련단체들이 힘을 합쳐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 및 미래의 비전 등을 월간 「설비건설」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월간 「설비건설」이 설비건설업계를 비춰준 희망의 등불이었듯 앞으로도 어두운 밤 뱃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설비건설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그동안 월간 「설비건설」을 애독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월간 「설비건설」에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월간 「설비건설」을 애독하여 주신 독자여러분과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설비건설업계 대변지로서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중추적 역할을 다 해주길



이 영 식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우리나라 설비건설업을 대표하는 전문 언론으로 성장한 월간 「설비건설」의 창간 2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국내유일의 설비건설 정보지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건설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또한 신기술, 신시공, 신자재 등 심도 있는 CONTENTS 구성으로 학술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설비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견인차가 되어 왔습니다.

설비건설업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에너지를 축적하여 이러한 무한경쟁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가 설비

건설업계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조합은 지금의 어려움을 도리어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고객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원 편익중심의 경영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조합원과 함께 상생발전 하는 공제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월간 「설비건설」이 설비건설업과 역사를 함께 하며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설비건설업계의 권익창출과 재도약을 위한 선도적 통합리더십의 대변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월간 「설비건설」의 지령 200호 기념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일반국민에게 설비건설업계 현황 알리는 충실한 전달자



조 일 현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우리 설비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월간 「설비건설」의 창간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설비건설업계의 종합전문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언제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은 수많은 기술과 문화가 녹아들어 하나의 종합체로 탄생하는 종합예술입니다. 그 중 설비건설은 인간의 소화·순환기나 신경을 만드는 작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건설은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 및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설비건설 수준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우리에게 더 한층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첨단 건축물일수록 설비건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설비건설업계의 소규모화, 지역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업

계가 극복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등 모든 부문이 합심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설비건설업계가 친환경적 설비기술 개발, 건전한 설비건설문화 수립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월간 「설비건설」은 설비건설산업 관계자에게는 설비기술 관련 정보 및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 설비건설산업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설비건설업계의 현황을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설비건설」이 설비건설산업의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의 제시 및 건전한 설비건설문화의 창달에 앞장서는 전문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 설비건설 분야의 정확한 정책 진단 및 설비건설 발전 방안 제시



권 홍 사 ● 대한건설협회 회장

한국 건설산업, 특히 설비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월간 「설비건설」의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업계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설비건설 산업과 관련한 각종 뉴스와 컬럼, 기획특집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설비산업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여 건설업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의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SOC투자 축소와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165억불을 달성하여 건설코리아의 영광과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대책으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으로 건설수주가 전년 보다 감소하고 업체 수 과다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는 등 건설환경이 그리 밝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공간에서 쾌적한 삶

으로 건축물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연경관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건설수요의 고급화·다양화와 함께 생산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제 건설업계도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건설생산시스템 개편, 기술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우수 건설인재 양성과 함께 대·중·소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설비건설 분야도 건설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춰 설비 자동화 및 고급화 등 기술개발을 통해 설비 전문화를 이룩하는 한편 블루오션 개척을 위한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이 발전할수록 설비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만큼 월간 「설비건설」이 건설정론지로서 설비건설 분야의 정확한 정책 진단과 방향을 피력하여 설비건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월간 「설비건설」의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다 밝고 희망찬 정보를 제공하는, 독자로부터 사랑받는 건설전문지로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

## 설비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위해 더 많은 지면 할애



이 용 구 ● 해외건설협회 회장

우리나라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온 대한 설비건설협회의 월간 「설비건설」 창간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국내 유일의 설비건설업계 정보지로서 우리나라 설비건설의 육성 · 발전을 비롯한 새로운 건설문화 창달에도 지대한 공헌과 열성을 쏟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의 역사를 간직한 월간 「설비건설」이 앞으로도 업계의 도약과 중흥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비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비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경험의 부족과 자본, 기술의 열세 등으로 여타 업종에 비해 해외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건설업체들의 당면과제와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월간「설비건설」지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월간「설비건설」지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업계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하길



박 덕 흠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지난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설비건설업계의 대변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월간「설비건설」창간 200호를 3만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설비건설」은 그 동안 건설 전문지로서 신기술, 업계 동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왔을 뿐 아니라 건설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 89년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자리매김하기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등 설비업계의 메신저로 큰 기여를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불필요한 정보, 낡은 정보, 심지어 허위정보 까지도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월간「설비건설」은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엄선하여 설비업계는 물론 타 건설분야

종사자, 발주자,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나마 책자 제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설비건설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조'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건설업계 역시 멀지 않은 장래에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선봉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지만, 최근 비자금, 부실공사, 고비용 저효율 산업 등 따가운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상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설업체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기술, 자금, 마케팅 능력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관련 생산주체들은 업역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집약적 지식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 월간「설비건설」역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매체로 성장하여 건설업계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월간「설비건설」창간 200호를 축하드리며, 건설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기계설비인들과 산업발전을 위해 월간「설비건설」의 역할을 기대



강 신 형 ● 기계설비협의회 회장

국내 유일의 설비건설정보지인 월간「설비건설」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기관지로서, 1990년 5월 창간된 이래 회원들에게 다양한 업계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또 회원들 간에 친목과 정보교환을 위한 다양한 기사 및 컬럼을 운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느새 200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매달 기다리는 회지를 기획하고, 기사를 발굴하고, 기술정보를 수집 편집하고, 회원들의 동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기술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생각보다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월간「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에 관한 정보 제공은 물론 회원사 및 설비건설인 그리고 설비건설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전문지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선 편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역대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200회를 맞는 월간「설비건설」을 위한 대한설비건설협회 임직원들과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설비기술은 여러 가지 학문과 기술이 종합적으로 응

용되는 속성에 의해 신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술 사회의 분위기에서 전망이 어둡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기계설비산업이 일반 건축분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 속에서 경쟁이 과다해지고 있으며 후속세대가 참여를 주저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위기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 환경 친화적인 설비, 에너지 절약의 자원 경제적 요구에 따라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술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기대도 큼니다. 우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인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정책개발, 제도개선, 신기술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의 설계, 제조, 시공, 감리 등 여러 설비산업 관련 여러분들의 단합과 기여가 어느 때 보다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설비인들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200호를 맞는 월간「설비건설」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계설비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전 기계설비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설비기술인들에게 희망과 비전 주고 설비산업발전의 견인차 되길



정 광 섭 ●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설비건설 업계의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은 물론 설비건설 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월간 「설비건설」지의 창간 200호를 대한설비공학회 회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월간 「설비건설」지는 설비기술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설비건설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은 물론 설비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설비 건설업계의 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설비건설 법령과 고시, 대한설비건설협회 내 여러 시·도회의 현황과 소식, 기획연재를 통한 기술 지식 제공, 설비강좌를 통한 교육 및 건설소식 등 월간 「설비건설」지의 역할은 설비기술인들에게는 큰 몫을 했으며 금과옥조와 같은 것

으로 판단됩니다.

창간 200호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월간 「설비건설」지가 한 차원 높은 전문 지식 제공과 더욱 경쟁력을 갖춘 협회지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올 해는 월간 「설비건설」지가 우리나라 설비 산업 발전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견인차가 되고, 이 분야의 희망과 비전을 설비기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도약을 다짐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월간 「설비건설」지의 창간 200호 기념을 축하드리고,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와 역량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밑거름 되는 전문지로 발전하길



박 종 국 ●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월간「설비건설」 창간 200호를 맞이하여 그간 설비 건설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대한설비건설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설비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발행인 및 편집인 제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전문지는 산업계와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산업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 할 때, 월간「설비건설」지는 창간 이래로 국내외 설비관련 산업동향과 신기술 정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건설산업은 부동산 경기의 이상과열과 신규투자 감소, 소비위축 등 어려운 한 해였지만, 정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지방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 공공택지 공급확대,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많은 부분에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설비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공, 설계, 제조, 유지관리 등 전문 분야가 고르게 발전되어야 하며, 우리분야 권익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상호 협력하고 개선함으로써 진정한 업계발전을 도모하여 함께 성장하는 문화, 함께 서로를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문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조화를 이루는 문화, “설비가 곧 문화”라는 인식으로 우리 설비인들이 한발 앞장서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안해 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설비인들이 충분한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월간「설비건설」지가 설비와 관련된 산업동향과 신기술, 신공법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업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유익한 전문지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제삼 통권 2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 다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 설비건설분야에 으뜸 매체 되길



이 완 근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회장

설비건설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월간 「설비건설」의 지령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경향은 지금보다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협정 발효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경제 블록과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한-미 FTA 협상의 추진 결과에 따라 우리 냉동공조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냉동공조산업계는 국산제품 완성도 개선 및 국제 경쟁력 향상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냉동공조제품 및 부품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도 확대 추진과 더불어 우수신제품 인증 및 세계일류상품 지정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우리 냉동공조산업계의 이러한 노력은 양질의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설비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품질의 시공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냉동공조산업계와 설비건설업계가 긴밀한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적극 앞장섬은 물론 설비건설산업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하며, 그 막중한 책임을 월간 「설비건설」이 맡아야 하겠습니다.

월간 「설비건설」이 200호를 발행하는 동안 설비건설인들의 길라잡이가 되었듯이 앞으로도 경영인에게는 경영기법 및 관리기법, 과당경쟁 지양을, 기술인에게는 신기술 및 신자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비건설분야에서 으뜸가는 매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월간 「설비건설」의 지령 200호를 맞아 월간 「설비건설」 및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협력과 단결로 제도개선에 매진해야



김 선 하 ● 설비엔지니어링협회 회장

국내 유일의 설비건설종합정보지 월간「설비건설」지령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90년 5월 창간이후 17년간 설비건설업계의 대변지로서 산업기술정보교류, 신기술·신공법의 소개, 기술개발의 지원과 보급, 설비건설산업의 비전제시와 건설문화창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국민홍보 및 설비업계의 위상강화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음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최근의 국내 건설산업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설원가의 공개, 반값아파트정책대안제시 등 각종부동산시장 규제로 건설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한미FTA와 대외시장 개방,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 턴키대안공사의 몰락 축소,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폐지, 하도급공사금액의 추락현상 등으로 매우 어려운 건설시장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메지 말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설비건설인들과 설비5개단체 즉, 학술분야의 대한설비공학회, 건설시공분야의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조분야의 한국냉동공업협회, 기술분야의 한국설비기술협회, 설계분야의 설비엔지니어링협회와 학계, 연구소, 관공서, 기술사회, 종합건설회사 등 유관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설비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단결하여 설비인들의 꿈인 분리발주와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시켜주어, 창조적인 생산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나아가 에너지절약을 통한 친환경 설비를 창출하는 설비건설인 여러분들과 월간「설비건설」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업계 염원 집약하여 건설기술인의 공감대 형성 및 전문기술 정보언론으로 거듭나길



이진호 ● 종합건설기계설비협회의 회장

설비건설업계의 유일한 정보지인 월간 「설비건설」의 창간 200호 발간을 맞아 설비기술인 모두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990년 창간 이래 설비건설업계와 동고동락 하며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한 월간 「설비건설」 가족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월간 「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술정보 제공은 물론 설비건설산업의 비전 제시 및 건전한 설비건설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업계가 일구어 놓은 발전상과 설비기술인의 높아진 위상은 우리 설비기술인과 종합 정보지인 월간 「설비건설」의 공통된 염원과 노력이 일구어온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설비산업은 변화된 환경과 어느 때 보다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정책의 홍수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이중고에 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공법의 개발·개선과 공사관리 노하우 축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극복하고 신기술 개발과 사업영역 확대로 시장을 개척해 나감으로 향후 어려움을 이겨낸 발전된 모습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설비인들은 이러한 현 상황을 인지하고 모든 설비단체 각각의 이익 추구만이 아닌 전체의 뜻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월간 「설비건설」은 설비기술정보 전달과 업계 위상제고, 기술인 육성사업 추진, 설비건설업법 제정 등과 같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중점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 건설기술인의 공감대 형성과 업계의 염원을 집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지난 17년의 모습보다 한층 발전된 전문 기술정보 언론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월간 「설비건설」의 창간 200호 발간을 전 설비기술인과 함께 축하드리며 월간 「설비건설」이 설비건설업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는 정보 제공, 설비건설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김 규 생 ● 전국대학설비분야교수협의회 회장

월간「설비건설」 200호 특집 발행에 즈음하여 인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건설 환경  
하에서도 설비건설산업의 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설비  
건설업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설비분야 학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1989년 창립된 이래 설비건설  
분야의 시공기술 향상,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업계 발전  
과 회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국내  
유일의 설비건설 정보잡지인 월간 「설비건설」을 출간  
하여 설비건설기술분야의 설비기술 전달 및 발달에 크  
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건설업계 최대의 관심사였던 건설산업기본  
법 개정안 중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법안의 국회  
제출, 국내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건설시장의 건설공사  
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외형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안정성이 높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공사위주로 수  
주 전략을 전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회원사  
간의 덤핑 수준을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설비 공  
법의 신기술 도입, 현장 공사 관리의 체계화에 의한 생  
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화시대로서 첨단 기술력이 경  
쟁력을 좌우하므로 기술개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FTA가입으로 인한 국내건설시장 개  
방을 앞두고 건설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기술력 확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될 것이고, 역으로 중동, 동남  
아, 유럽 등의 해외 건설 시장의 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들이 합심하  
여 어려움을 이겨낸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8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 동안의  
저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월간  
「설비건설」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해 줌으로써 설비건설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월간 「설비건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  
니다.

끝으로 저희 설비분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실  
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기본으  
로 하고, 강단에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업계  
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개발, 설비업역 확대, 제도개선  
등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